11월 16일 (월) / 고전 13-16

⬩내용요약: 13장은 '사랑 장(章); 으로 불리는 사랑의 시편이다.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문제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고린도교회에게 성령은사에 관한 총론적 교훈을 주었던 바울은 13장에서 은사들의 사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원리요, 최고의 은사라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사랑의 절대가치와 절대필요성(1-3절), 사랑의 다양한 모습(4-7절), 사랑의 절대우위성과 그 영원성(8-13절)으로 나뉜다. 14장에서는 고린도교회가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무제 가운데 하나인 방언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오직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사용할 방언(1-19절), 방언보다 우울한 예언의 유익성(20-25절), 교회질서를 염두에 둔 은사사용(26-33절), 교회질서를 위한 여성의 위치문제, 결론적 권면등이 기록되고 있다.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한 성경적 근거와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을 소개하고 그리스도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의 개연성 및 그 확실성을 제시하며 부활한 육체의 본질적 특성, 그리스도 재림으로 성도의 부활과 사망권세에 대한 승리를 적고 있다. 1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목회적 권면과 마지막 문안인사를 하고 있다.

⬩질문: 고전13장은 흔히 무엇이라 불리는가?

⬩생각하기: 은사를 받은 자는 항상 자기교만, 무절제한 은사사용, 우월의식에 다른 파당적 분열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11월 17일(화) / 고후 1-3

⬩내용요약: 소위 '감사의 편지' 로 알려진 고린도후서는 앞선 편지(고린도전서) 보다 매우 정적이며 감격적이고 친근한 필치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고린도교회 내 산적한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상황이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장은 고린도후서의 서론부이자 특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긴 변호를(1:12-7:16) 시작하는 부분이다. 사도적 권위로써 문안인사(1-2절), 환난 중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에 대한 감사(3-11절), 사도 방ㄹ 자신의 진실성에 관한 변호(12-14절), 선교여행로의 변경에 따른 변호(15-24절)등의 내용으로 역어져 있다. 2장에는 계획했던 선교여행로의 변경으로 바울에 대한 신뢰와 사도성까지의심 받게 되자 오해에 대한 긴 변명(1:12-7:16)의 초반부로, 여로의 변경에 대한 자기변호 중(1:12-2:4) 고린도교회를 친히 방문하지 않은 이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 몇몇 훼방차들에 대한 처리문제(5-11절), 마게도냐 여행에 대한 설명 및 사도직이 갖는 특권(12-17절)을 설명한다. 3장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힘으로 주어진 특별한 것으로(1-3절), 사도직은 구약의 그 어떤 직분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소개한다(4-18절).

⬩질문: 고린도후서는 흔히 어떤 책으로 불리는가?

⬩생각하기: 남들이 부러워할 물질과 명예 학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만족할 인생을 살 수 없다(3:5절).

11월 18일(수) / 고후 4-6

⬩내용요약: 4장에서 바울은 시도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전내용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임을 밝히고(1-6절), 비록 자신은 깨어지기 쉽고 심히 나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자기가 전하며 도 자기 속에 거하시는 예수는 보배롭고 빛 된 존재임을 역설하고(7-15절), 복음 사역으로 인한 곁사람의 현재적 고난과 그에 비교될 수 없는 속사람의 미래적(영원한) 영광을 대비. 설명해주고 있다(16-18절). 5장에서 바울은 장막 만들기로 자비량 선교했었던 자신이 그 장암을 인간의 연약한 육체에 비견함으로써 언젠가는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 장막 곧 육체의 한시성과 무력함 및 그것을 통과한 이후의 심판의 때와 영원 세상을, 의여한 자세로 설명한다(1-10절). 이어 바울자신이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함임을 밝히고(11-13절), 또 이같은 직임을 수행하는 자신과 그 직임의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한다. 6장에서 화해의 사도된 바울자신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이하는 자임을 밝히고 사도직 수행을 위해 많은 역경을 극복한 삶을 간증한다.

⬩질문: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4장)

⬩생각하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일로 인해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있는가? (4:5절)

11월 19일(목) / 고후 7-9

⬩내용요약: 바울은 본서의 기록지인 마게도냐에서 영적아들 디도와 해우하고 그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평안을 전해 듣고 감격한 어조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다. 7장에서 성결에의 권면(1절), 6:13절과 연결하여 관용에의 또 한 번의 권면(2-4절),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들이 일소되고 바울과 그 교회 사이에 생겨났던 균열이 해결된 것에 대한 큰 위로와 기쁨(5-16절) 등을 기록하고 있다. 8-9장에서 바울은 초대교회 내의 상당한 이슈로 제기되었던 빈핍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 문제를 다룬다. 8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뜨거운 헌금열을 모범삼아 고린도교회에, 작정한 헌금실행을 촉구하며(1-6절), 고린도교회의 진지한 노력을 독려하였다(7-15절). 그리고 이 헌금문제로 고린도교회에 피견할 세 사람의 헌금위원을 추천한다(16-24절). 9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구제헌금이 지연되고 있던 고린도교인들에게 헌금위원이 파송될 것인 만큼 부지런히 준비하여 실수나 착오가 없도록 할 것과 헌금을 하되 인색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후하게 헌금할 것(6-15절)을 권면하고 있다.

⬩질문: 바울은 헌금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가? (9장)

⬩생각하기: 소유의 많고 적음이, 마음으로 드려야 할 하나님께 대한 헌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8:2절).

11월 20일(금) / 고후 10-13

⬩내용요약: 10장은 바울의 인간성 및 사도성 변호에 집중되어 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비겁하다고 논한 이닌공격에 대해 변호하고(1-6절), 또한 자신이 연약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변호하였다(7-11절).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바울자신이 그들을 향해 자랑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사실을(12-18절) 설명하고 있다. 11장에서 바울은 자랑의 무익함을 전제한 뒤 거짓교사들을 비교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게 된 것을 용납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의 당영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자랑하며(7-11절), 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됨을 맹렬히 비난하고(12-15절) 참 사도된 바울자신이 교회를 위해 어떤 삶의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소개한다(16-33절).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소개하고 그같은 신령한 체험 때문에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아픈 가시를 주신 사실을 고백한다. 더불어 세 번째 고린도 방문계획 및 자비량 선교를 해 나갈 것을 언급한 후, 자신의 방문 이전 회개할 것을 당부한다. 13장에서도 자신이 고린도에 이르기 전 회개할 것을 또 한번 권면한다.

⬩질문: 바울은 육체의 아픈 가시를 갖고 있었는데 이유는(12장)?

⬩생각하기: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는 필연적으로 부드럽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마 11 :29절).

11월 21일(토) / 갈 1-3

⬩내용요약: 바울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율법의 행함을 혼합한 왜곡된 구원교리가 만연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바울은 소위 '소 로마서'요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이요 '종교개혁의 선전포고'라 불리는 갈라디아서를 저작하여 이신득의(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앞에 의롭게 됨)을 가르친다. 1장은 본서의 집필동기(율법주의에 물든 거짓교사들에 의해 왜곡된 복음의 도리를 세위기 위함)를 밝히고(6-10절) 자신의 구원체험을 토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친다. 2장은 예루살렘 공의회(A.D. 49년경)에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실(1-10절), 수리아 안디옥에서 외식한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을 언급함으로 자신과 베드로의 위상이 결코 차이가나지 않음을 밝히고(11-14절) 복음의 중심인 이신득의 교리설명(15-21절)을 한다. 3장은 복음과 율법을 구분치 못하고 혼합주의에 빠진 갈라디아교인들에 대한 책망, 율법의 저주적 기능과 복음의 축복적 기능을 비교등을 기록한다(10-14절).

⬩질문: 기독신앙 교리의 핵심인 '이신득의' 란 무슨 뜻인가?

⬩생각하기: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되고 구원얻게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합2:4)..

11월 22일(일) / 갈 4-6

⬩내용요약: 4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한계성과 복음의 완전성(1-7절), 복음의 자유인으로서 율법의 노예로 회귀하려는 갈라디아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8-11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바울의 내면적 상태 곧 그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지극한 애정을 표현하며(12-20절),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을 예시하여 복음(새언약)과 율법(옛 언약)의 엄청난 차이점을 소개(21-31절)한다.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교리적 설명에 이은 실천적 행동을 제시한 부분이 5-6장이다.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얻은 자유를 굳세게 지킬 것(1절)과 오직 믿음으로써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음과 사랑으로써 그 자유를 보존할 수 있음을 논한 후(2-15절) 육체의 일 (15가지)과 영적인 일 (9가지) 을 비교하여 참자유를 얻은 자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생활임을 강조하였다(16-28절). 5장에서 율법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되어 믿음으로써 참 자유를 얻게 된 영혼의 실천강령으로써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할 것을 권면한 바울은 6장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취급하여 건강한 믿음생활의 기틀을 세운다. 믿음으로 구원얻는 성도의 바른 인간관계(1-5절), 참 자유를 얻은 자의 나눔과 선행(6-10절), 대결론으로 하례의 무익함을 강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되는 이신득의교리를 다시 확인한다(11-18절). 이상에서 보듯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성도는 그 주어진 자유를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얻는 데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주어진 자유로써 더욱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질문:

⬩생각하기: 율법은 죄인인 인간을 죄 아래 머물게 하나 복음은 구원과 참 자유 아래 머물게 한다. 복음은 율법의 멍에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는 동시에 더 성숙(성장)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한다.